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ubic Bay Freeport Zone에 위치하였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주변 시내 (Harbor point, SM downtown city)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FB나 택시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그닥 좋은편은 아닙니다. 빌라 내에서는 로비밖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빌라 가운데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저녁에 놀기 좋았습니다. 빌라 내의 방은 구조가 다 달랐으나, 제가 머물렀던 방은 싱글 침대가 세 개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특별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매주 3일씩 청소와 빨래를 해주시기 때문에 방 청결도에 불편함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개미 같은 벌레가 좀 많이 나타나는 점은 불편하였습니다.
수업	수업은 학교에서 준비해준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Reading, TOEIC Speaking, vocabulary, face to face, MMC 총 다섯 과목이 있었으며, Reading과 Vocabulary는 선생님과 1:1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업은 그룹 클래스로 진행되었으며, 총 수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 클래스당 50분의 수업시간 10분의 쉬는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은 선생님들에 따라 달랐는데, 어떤 선생님은 50분동안 프리토킹으로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분들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은 책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겪었던 선생님은 두 가지 경우를 섞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50분동안 대화만 하거나 책을 사용하여 수업을 하시는 수업방식도 영어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필드트립	Activity는 주중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하는 Activity, 주말 이틀 중 하는 Activity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하는 Activity는 요트체험, 하이킹, 영화보기가 있었습니다. 세가지 Activity 모두 따로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은 없었습니다. 주중 Activity는 매주 화요일 3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주로 빌라 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중 Activity 또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날씨는 한낮에는 20 ° 후반이고, 한국의 여름 날씨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로 반팔이나 민소매를 많이 입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보다 공기가 후덥지근하지는 않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춥습니다. 또한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긴 팔이나 얇은 셔츠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크림을 항상 바르고 다녀야합니다.
안전	현지에서는 매 건물의 입구마다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또한 Harbor point나 SM downtown City를 들어갈 때에는 시큐리티가 가방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빌라 내에서도 가드와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길을 걷거나 할 때 어떤 남자들이 코리안이나고 물어보거나 뷰티풀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소	기숙사의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빌라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친구들과 수업이 끝난 후에 놀기 좋았고, 매주 화, 목, 토에 청소와 빨래를 해주시기 때문에 청결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산이 근처에 있어서 벌레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숙사 통금이 오후 10시까지 였지만, 오후에 일찍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가니 통금시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빌라 내의 카페테리아의 밥은 고등학교 때의 급식과 비슷했습니다. 필리핀 음식은 전체적으로 간이 심했습니다. 한국사람의 왕래가 많은 편인지 한인식당도 심심치 않게 보였으나, 단체로 삼겹살 무한리필집에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간 적이 없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편은 FB와 택시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택시는 보통 Harbor point에서 빌라까지 100페소 정도가 나왔고, FB는 150~200페소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인당 부담하는 정도는 10~30페소 안쪽이었습니다. 또한 큰 백화점인 SM Central에 가기 위해서는 SM Downtown 앞에서 zipni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9페소 정도 들었습니다. 이 외에 SUBIC BAY쪽은 Harbor point쪽에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비행기 값 및	690000₩	
식비 및 기타 지출	606100₩	500\$/44804₩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주 3회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속옷이나 수건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수건을 자주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건 6장을 자주 돌려서 사용하였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 그3 장 정도로 사용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우니 선크림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스틱형 선크림을 하나 구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미리 사가면 좋습니다. 보통은 한국음식 같은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가거나 한국에서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중에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빌라 주변에 한인마트가 있고, Harbor point 주변에도 한인마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라면 중 몇 종류는 큰 마켓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면포트를 가져가면 편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5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들 선물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들 선물로 큰 돈을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기 때문에, 돈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겨울방학의 필리핀 어학연수로 인하여 좀 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의 수업으로 인해 듣기 능력,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계기로 학기 중에도 학과 공부와 함께 영어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토스 공부하던 것을 이어 받아서 한국에 와서도 토스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한국에서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는데, 한 달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들으니 하루가 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연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발렌타인 데이 액티비티 시간에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초콜릿 분수</p>	<p>두번째 주 주말 액티비티 때 갔던 산에서 찍은 사진. 풍경이 예뻐요</p>



집으로 오기 전전날 밤에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피자를 먹으면서 단체 사진



편프라이데이때 파자마를 입고
토익스피킹선생님&그룹 같이 찍은
단체사진



마지막 시간 선생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그룹끼리 케이크 해서
드렸음



MMC 페스티벌이 끝나고 MMC 선생님과
함께 단체사진 선생님께도 케이크를
드렸음.